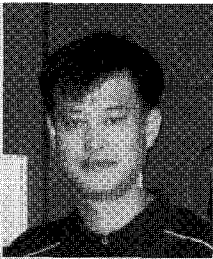


(주)프린텍 창업, 제2의 도약 실천

레지스터콘트롤 업계 선도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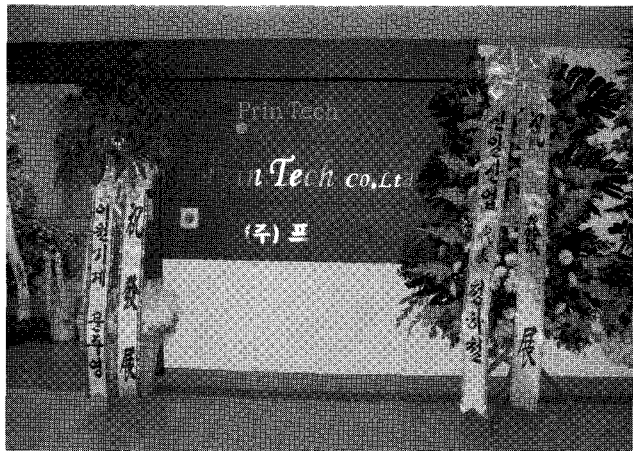


유영석
(주)프린텍 대표이사

그라비아 인쇄기를 사용하는 연포장 인쇄 업체들에게 인쇄 품질을 높이고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레지스터 콘트롤러(Register Controller)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로토 그라비아 인쇄업체의 요구에 부응해 (주)아텍콘트롤이 개발한 레지스터콘트롤 칼라마크(ColorMark)는 고정밀, 고속, 고정도의 디지털 레지스터 제어를 자랑하며 업계 발전을 선도해 왔다.

1988년 한국통신 입사를 시작으로 (주)삼우통신공업 기술연구소에서 전전자 교환기/리피터/PCM 단국장치 통신장비 개발 업무를 해 온 (주)프린텍 유영석 사장은 (주)삼성시계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거쳐 (주)협진 정보통신 공업 기술연구소에서 무인 등대 콘트롤 시스템, 농업 진흥청 기상 관측 시스템, 은행 전산망 등을 개발했다.



▲ 경기도 부천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주)프린텍

1994년 6월 7일 인천광역시 송현동에 아텍컬러컨트롤러를 공동대표로 창업, 설립 당시 Art 2000이라는 모델로 국내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 아시아 각국에 업무 협약을 맺은 에이전트를 두고 해외 수출에 주력해 왔다. 특히 그는 국내 최초로 컴퓨터 인쇄방식인 레지스터 컨트롤 칼라마크(COLOR-MARK)를 개발, 레지스터 컨트롤 업계 유명 엔지니어이자 경영자이다.

2001년 4월 (주)아텍콘트

롤로 법인을 전환하며 레지스터 컨트롤 업계를 선도해 온 유영석 사장. 그는 지난 5월 20일 (주)아텍컨트롤의 공동 대표이사를 탈퇴, (주)프린텍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경기도 부천테크노파크에 제2의 도약을 꿈꾸며 창업하게 된다.

유영석 사장은 “급변하는 세계의 무한 경쟁시대에 발빠른 개발 및 기술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기업의 개발, 투자,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과 관련 해 최고 경영자와의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하여 원할한 기

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히면서 “한국 레지스터 컨트롤의 미래를 위해 (주)프린텍으로 재탄생하게 됐다”고 전했다.

(주)프린텍은 25개국에 해외지사 및 영업소를 보유하면서 세계 최초로 한국형 레지스터 마크(기준마크) 인쇄방식을 개발, 정전하 인쇄장치와 카메라 컬러레지스터 센싱을 개발(카메라 스캐닝 헤드 개발)하는 등 고객 요구에 부응하며 발전하고 있다.

현재 (주)프린텍은 레지스터 컨트롤 PRT-MARK(보급형/좌우/상하/프리셋팅/원격 제어장치), PRT-COLOR-MARK(고급형/좌우/상하/프리셋팅/원격제어), PRT-COLOR-ME2형(최고급형/좌우/상하/프리셋팅/원격 제어/카메라 색상감지/화상 검사장치) 등과 정전하 인쇄 장치, 화상 검사장치, 사업용 카메라, 휴대용 캠 화상 장치, 스트로보 스코우프(휴대용), 1,200MM 장폭용 멀티 스트로보 스코우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칼라마



▲ (주)프린텍의 칼라마크(Color Mark)

PRINTECH

크(ColorMark)는 연한색상에서도 높은 정밀도를 재현하며 낮은 에러율을 자랑한다. 특히 터치 스크린 방식의 간편한 조작으로 높은 생산성을 구현하는데 효과적이다.

유영석 사장은 “업계 최고의 기술 인력 및 품질을 자부

한다”고 단언한다. 실제로 (주)프린텍은 베테랑 기술진의 풍부한 경험축적으로 컬러 콘을 자체 개발, 국내 최고의 품질 및 세계 최신형의 레지스터 콘트롤 자체 기술 개발 생산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체 해외 서비스망을 구축해 연 10억 이상의 업계 최고 수출 실적을 가지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렇게 ‘MADE IN KOREA 컬러콘트롤’을 세계 최고의 레지스터 콘트롤메이커로 성장시키기 위한 유영석 사장의 노력은 우수한 현장경험과 기술력, 철저한 고객 애프터서비스와 동종업계 최고의 장기무상 보증 및 A/S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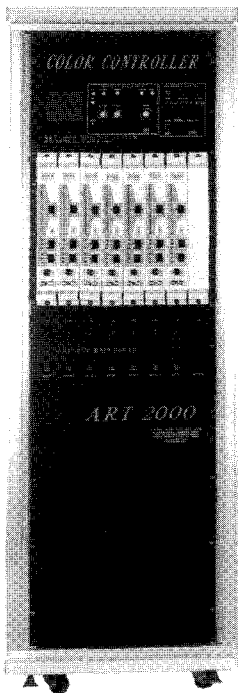
현재 사용하는 컬러 콘트롤의 동작 형태는 앞 컬러의 색상을 추종하는 방식으로 컬러 콘트롤의 자동 인쇄 실현시 그 정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1도에서 8도 컬러

의 인쇄 매칭 시간이 매우 길어 원단 교체시 많은 양의 인쇄 불량을 감수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 또한 첫 번째 도수의 인쇄 미세 조정시 뒷 채널의 인쇄 매칭또한 모두 틀어져 불편을 초래했다.

유영석 사장은 “현재 인쇄 업체에서 실린더 발주 시 1도 동판의 레지스터 돔보를 인쇄 하려는 색상에 0mm 간격으로 톱보를 넣은 다음 2도 동판부터는 40mm 간격으로 각 1개씩 마크를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업계 발전을 제시했다.

세계 최고 품질의 컬러콘트롤을 보다 저렴하게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싶다는 (주)프린텍의 포부,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MADE IN KOREA 컬러콘트롤’의 글로벌화를 위해 주력할 것이라는 (주)프린텍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



▲ Art-2000